

제주 미래산업의 경쟁력, 시스템 디자인(system-design)이 필요하다



고 부 언
제주발전연구원장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경제성장과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형자산(intangibles)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그 투자규모가 기존 산업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지식집약적인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실제 장부의 가치보다 10배 이상 크게 평가되고 있다.

브루킹(Brooking)은 이러한 무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시장 자산, 지적소유 자산, 인간중심 자산, 인프라 자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장자산'이란 특정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브랜드, 고객의 규모와 충성도, 단골거래, 유통경로 및 가맹점 협정 등을 말한다. 둘째, '지적소유자산'으로는 노하우, 기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인간중심 자산'은 경제 주체의 직원에 의해 구현되는 집단적 전문 기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리더쉽, 경영기술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며 넷째, '인프라 자산'은 경제 주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방법론 및 절차 등으로 기업문화, 마케팅 능력, 재무 구조, 의사결정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

자산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이 무형자산 자체가 바로 미래산업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형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직결시킬 것인가는 곧 미래산업의 시스템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다. 이는 미래산업의 성패가 곧 무형자산의 운용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미래산업인 무형자산은 매우 역동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화두는 자연스레 미래의 다양한 산업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미래산업의 성패는 경제의 부흥과 추락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지난해에는 1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표했다.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나노산업(NT), 환경산업(ET) 등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력 산업군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그 중심에는 무형자산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역 단위의 경쟁력 수준은 무수한 요소가 복합되어 결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은 시스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최근 저성장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살펴보면 그 추락 원인을 일본 기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만 돌릴 수 없다. 일본의 경제 위기는 일본 체제를 구성하는 무수한 요소가 착종되어서 나온 결과로 봐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90년대 중반 이후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으로 볼 때 2003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그런데 이를 단지 제주경제의 농·축산업이 옛날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스템적인 관점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즉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총체적(holistic)인 관점에서 접근·분석·처방해야만 제대로 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아일랜드, 칠레, 싱가포르 등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스템 경쟁력은 저절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유념해야만 한다. 경쟁력 시스템을 어떤 내용으로 디자인해서 이에 기초한 정책을 얼마나 과감하게 추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무엇을 시스템화하여 디자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무형자산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시스템화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이를 추진하는 데 예산과 법령 등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적 특색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와 연계된 시장 자산, 지적소유 자산, 인간중심 자산, 인프라 자산의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산과 법령 등의 구조적 약조조건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무형자산의 시스템을 디자인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제주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시스템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사회·문화적 자산을 측정하는 요소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주사회가 분열구조이나 아니면 통합구조이나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사회는 자발적 통합성이 강한 사회였다. 다른 말로 한다면 수놓음 협동체제가 잘 갖춰진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가 과거 무정부주의 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강했던 원인은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의 3無 정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도둑이 없다는 것은 위협이 없다는 것이고, 거지가 없다는 것은 착취가 없고 근면함이 생활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며, 대문이 없다는 것은 신뢰의 바탕이 튼튼하다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제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거나 이러한 모습에 근접한 사회였다.

그러나 제주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4·3사건과 개발산업사회를 지나면서 이렇듯 강한 중층적인 내부구조가 분열을 띠기 시작했다. 4·3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개발과 보존을 놓고 벌이는 여론의 양극화 현상, 내지인과 외지인

의 명시적·묵시적 대립,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배타적 집단주의 등 갈등과 통합의 저해 요소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면서 내연하고 있다.

제주도는 인구 50만으로써 서울의 1개구 인구 규모도 안 된다. 국회의원 수 3명에, 제주도 예산은 전체 나라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분열로 제주의 도력을 소진시킨다면 제주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창의력 있는 전략적 사고다. 적실성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제주의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 그것이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형자산의 핵심인 인적·지적 경쟁력 요소와 제도적 행정적 경쟁력을 시스템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핀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인적·지적 경쟁력 요소를 시스템으로 디자인 해냈다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풀을 들 수 있다.

또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제도적 행정적 경쟁력을 시스템으로 디자인했다는 것이다.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은 산업유치를 위한 유인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민자유치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떠한 유인체계를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세계 자본의 이동에서 중요한 요인은 이를 유인할 체계이고 모든 자치정부들이 자본 유입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유인체계이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제도적 행정적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적 경쟁력을 시스템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제주의 경쟁력을 말할 때 산업적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서 감귤과 관광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IT·BT, 물류, 금융산업 등이 미래산업으로 논의된다. 이제 이런 산업들의 적실성 여부와 시장규모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제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제주의 미래산업을 위해 바로 이런 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구상도 제주특별자치도 후속 작업도 이런 경쟁력 시스템 디자인의 한 부분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2004년 하반기동안 제주의 미래산업을 시스템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제주의 미래산업을 시스템으로 디자인하는 것이야말로 제주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경쟁력은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나 강원도와도 달라야 한다는 지극히 자아준거적인 개념에서 출발하기도 하였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제주의 미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형화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로 유형화했으며, 이것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기틀을 둔 산업적 경쟁력 요소, 인적·지적 경쟁력 요소, 제도적·행정적 경쟁력 요소, 사회적·문화적 요소이다.

이상은 제주 미래산업의 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한 하나의 초보적인 논의이다. 이는 시간을 두고 좀 더 각각의 제주적 경쟁력 요소에 대한 현상과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진단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고 기초로 해서 심도

있는 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각각의 경쟁력 요소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정책 구상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분양되고 제주지역사회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장적 측면에서부터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을 첨단과학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과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차별화된 어떤 유인체계를 제도화할 것인가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추진할 인재풀을 도내에서 육성하는 작업도 중요하고 그것이 곤란할 경우, 외부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들을 유인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세계화란 약자인 제주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인들이 개발로 인한 피해 의식도 갖지 않고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세계화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교육체계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따라서 제주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경쟁력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는 시스템 디자인(system-design)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만 그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